

여성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이 성 립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중복지전공 교수)

우리 나라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2020년경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현재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노동력 부족과 연금기금 고갈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약 절반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인력활용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왜 취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미취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3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연령이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를 제외한 성인 여성이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689명이다(미취업자 1388명, 취업자 1301명). 분석방법은 취업과 미취업의 이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probit 모델을 적용하였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에 대한 가계경제 모델은 취업/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의 가계생산, 인적자본, 가족 자원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생산과 관련된 요인으로 결혼상태, 연령대별 자녀 유무, 가계내 성인 여성의 부모세대 가구원의 존재를, 인적자본과 관련된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연령을, 가족 자원과 관련된 요인으로 다른 가구원의 소득, 순자산을 포함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여성 노동수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지의 여성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 성인여성보다 한 세대 위인 여성이 존재하는 경우 윗세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여성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의 존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학력이 고등학교 미만, 전문대학 이상인 여성이 보다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취업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적인 시사점과 상반된 결과이다. 여성실업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결혼 상태보다는 어린 자녀의 유무와 가사를 돌볼 가능성이 큰 노인 세대 여성의 존재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보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취업하는 양극 현상을 보인다.